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Following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ongjoo Kim¹, Kyungyee Kim^{2*}

¹Kyeseoung High School, ²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has been operated aft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ow principals and religion teachers perceive its necessity and role, and how it is being restructured within the new curriculum context.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religion teachers in Korean Catholic schools. The study analyzed operational forms,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factors influencing curriculum implementation. Religious education was found to be offered in various formats, including regular, elective, and integrated courses. While both groups affirmed its value for Catholic identity and holistic formation, principals focused on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eachers on classroom constrai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ligious education is undergoing strategic restructuring in response to curriculum policy and sociocultural change rather than simple reduction, indicating adaptive transformation within Catholic schools.

[Keywords] Catholic Schools, Religious Education, 2022 Revised Curriculum, Curriculum Restructuring, Secularization

* **Corresponding author** Kyungy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clara90@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 실태 연구

김홍주¹, 김경이²

¹계성고등학교 교사, ²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과 종교교사가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교육과정 환경 속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톨릭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교 교과 개설 현황, 운영 형태, 인식 차이,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원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교육은 정규 교과, 선택 과목, 인접 교과와의 통합 및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 종교교육이 가톨릭 학교 정체성과 전인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만 교장은 제도적 구조와 교육과정 편성의 균형을, 종교교사는 수업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보다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단순한 유지나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정책, 선택 과목 구조, 탈종교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둘째, 종교교육은 고정된 교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적응하는 교육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탈종교화

I.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육계 전반에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의 교양 교과이며, 복수 교과 개설을 요청받는 종교 교과의 경우, 제도 변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 전반에도 주어지고 있다.

가톨릭 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은 단순한 교과 중 하나가 아니라 학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교과로 간주된다.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신앙 전수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엄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중심 영역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가톨릭 학교가 일반 학교와 구별되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핵심 교육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 선택권의 강화, 교과 다양화,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확산은 종교교육을 둘러싼 제도적·교육적 환경을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 방식이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타종교의 경우에는 일부 논문이 있지만(Kim, 2023; Lee, 2023; Lee & Kim, 2025), 가톨릭 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종교교육을 둘러싼 논의가 경험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종교교육의 위기나 축소에 대한 평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판단 역시 실제 운영 실태와 현장의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가톨릭 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교교육의 운영 형태와 인식,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인식되는 제약 요인과 지원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가톨릭 학교 교장과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운영실태와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제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제도 환경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는 교육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1. 종교교육의 의미의 다양성

‘종교교육’은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은 여러 종교의 역사적 전통과 교리, 경전 등을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다루며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하며, 교육과정의 선택과 실행 과정이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순수한 객관적 접근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Groome, 2011).

다음과 같은 구분도 있다.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은 특정 종교 전통 안에서 신앙 형성과 전수를 목표로 하는 고백적 교육으로, 학습자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한편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되 종교인 양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성 및 영성 형성을 지향하는 인격교육적 접근이다. 또한 종교로부터 배우는 교육(education from religion)은 특정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자원을 통해 삶의 의미와 공동선, 궁극적 질문을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신앙 고백 및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삶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배우게 하는 점에서 다른 개념들과 구분된다(Choi, 2005: 312-313).

2.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CFCE, 1965: n.8)¹⁾으로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가톨릭 학교의 공헌’(CFCE, 1965: n.9)을 기대하며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교회는 학교를 통해 인간의 전인적 형성에 참여(CFCE, 1965: n.15)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의 목적은 종교에 대한 지적 동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를 그분께 맡기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CFCE, 1965: n.50).

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CFCE로 표기. 또한 페이지가 아닌 항 표기는 n.로 함.

교황청의 사목 부서인 ‘가톨릭 교육성’이 발표한 문헌에 의하면 ‘교회 기관’인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현대의 가톨릭 학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목표와 기준이 담긴 학생 교육 전체에 통합하여 다른 교과목들과 더불어 주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CFCE, 1988: n.66.70)²⁾.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도 종교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과 전례, 특별 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종교 교과 시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교육 환경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CECBCK, 26)³⁾. 이에 따라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정규 교과로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전례행사를 통해 비정규 교과로서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즉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기대는 교회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로서 그 고유한 사명과 교육 계획을 종교교육을 통해 구체화한다(CFCE, 1997: n.11; CFCE, 2009: n.15)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한다(Benedict, n.111). 동시에 종교교육은 전인적 인격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 활동으로, 학교가 문화적 유산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전 영역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는 이해 위에서 전체 인격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CFCE, 1977: n.26~29). 이는 인성 교육 전반에 기여하며, 지식을 삶의 지혜로 전환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CFCE, 2009: n.17). 누스바움 또한 완전한 교육을 위해 특별히 대학 교육에서 종교 교육과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Nussbaum, 2012).

더 나아가 종교교육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고(CFCE, 1997: n.15~16), 다문화 사회 안에서 타종교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CFCE, 2013: n.11~13; Kim et al, 2012: 23: 42~44; CECBCK, 71). 궁극적으로 종교교육은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영적 지혜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CFCE, 1977: n.47; CFCE, 1997: n.14; Groome, 2011: 238; Cho, 2016: 104).

물론 가톨릭 학교는 "시민 기관"으로서 학교의 목적, 방법 및 특성에서 다른 모든 학교와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 학교는 그 교육 목표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톨릭학교는 항상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CFCE, 1988: n.67).

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CFCE로 표기. 또한 페이지가 아닌 항 표기는 n.로 함.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는 CECBCK로 표기. 또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CBCK로 표기.

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군에 속한다. 그 시작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자유 선택 교과 운영 원칙이 도입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개정을 거치며 종교 교과는 교양 영역 안에서 유지되어 왔다(Kim et al, 2012: 8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는 「삶과 종교」라는 과목명으로 일반 선택 교양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양 교과는 전인적 성장과 자율적 사고, 공동체적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 교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 중에서도 복수 과목 개설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제약과 긴장을 함께 내포한다. 이러한 위치는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제 학교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헌장 및 지침서에 따라 성경과 성전,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교리를 토대로 생명 존중, 정의와 평화, 공동선과 연대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체계와의 정합성이 요구된다(CECBCK,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는 ‘인간과 종교, 다양한 종교 이해, 종교 문화 유산,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학교 교과서 역시 동일한 내용 체계를 따르되, 각 영역을 가톨릭적 관점에서 심화·구체화한다. 예컨대 ‘종교적 지혜’와 ‘사회적 책임’ 단위에서는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교회 전통과 연결되어 제시되며, 타종교 이해 영역에서도 포용적 시각을 유지한다(CBCK, 2024).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 수업이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종교적 통찰을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톨릭 학교 교과서 역시 ‘삶에서 삶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구조 속에서 도입 - 본문 - 확장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종교교육을 지식 전달이 아닌 성찰과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2023).

결과적으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그 내용과 가치 지향에 있어 고유한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Kim, 2023).

4. 종교 무관심 시대의 종교교육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곧, 오늘날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나라의 시대상으로 인하여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종교 1984-

2021」을 보면,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문항의 응답과 관련하여 종교의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로 이동할수록 종교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았을 때,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종교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관련 변화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47%에서 2021년 1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소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19%에서 2021년 28%로 증가하였다(Gallup Korea, 2021).

이처럼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탈종교화 및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교육 환경 안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이나 목적성 등이 제대로 구현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 사회 특히 과학 기술 발전과 이성 중심주의 풍조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제르베와 노렌자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직관적인 사고가 아닌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 종교적 믿음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ervais & Norenzayan, 2012). 또한 종교적 믿음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는 과학 기술 특히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급부상한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많이 노출된 국가와 지역은 개인의 종교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Jackson et al., 2023).

가톨릭 학교의 입장에서, 탈종교화된 사회 문화에서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담은 교과목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즉, 시대적이고 정책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한국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적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가톨릭적인 좋은 교육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한국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과 인식 등의 현실태 파악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교장 및 종교교사(교목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내는 종교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교장과 종교교사에게 묻는 질문을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이 안에서 서로 인식의 정도와 차이를 비교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 질문 4개 문항과 개별 질문을 따

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항 목록
<Table 1> Questionnaire Items

교장	문항	종교교사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1	1	종교 교과 개설 현황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2	2	기타 개설 교과 현황
[공통]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의견	3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1
[공통] 교과목으로서 종교 교과 개설 필요 요인	4	[공통]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의견 2
자유 의견	5	[공통] 교과목으로서 종교 교과 개설 필요 요인
	6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이유
	7~12	종교 시설 현황
	13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14	[공통] 별도 종교 교과 미개설 의견
	15	종교 교과서 활용 비중
	16~24	종교교육 운영 관련 어려움
	25	자유 의견

2. 조사의 기본 설계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질문지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후 2025년 4월 16일에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질문지는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발송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회신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제작, URL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취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전산 입력, 논리적 오류 검출과 검증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2.0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질문지의 자유 응답 문항을 통해 받은 답변은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텍스트(Textom)를 통해 1차 키워드를 추출 및 분석한 후, 연구자가 2차 분석 및 재검토하여 범주를 확정하였다.

3. 연구 대상 표본

본 연구에는 가톨릭 학교의 교장과 종교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장의 경우 각 학교별로 1명씩 응답하여 총 40개 학교에서 40명의 교장이 참여하였다. 종교교사는 학교당 1명의 담당 교사를 기준으로 하여 31개 학교에서 31명의 종교교사가 참여하였다.

참고로 2025년 현재 한국의 가톨릭계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39개교, 대안교육기관 9개교 등 총 86개교이다(CBCK, 2024). 따라서 본 조사에는 전체 가톨릭계 학교의 약 46.5%에 해당하는 40개 학교의 교장이 참여하였으며, 36.0%에 해당하는 31개 학교의 종교교사가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 빈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 빈도
<Table 2> Participation Frequency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	N	%
초등학교	5	12.5	8	25.8
중학교	11	27.5	6	19.4
고등학교	24	60.0	17	54.8
전체	40	100.0	31	100.0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설문 응답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모든 응답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고려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장의 연구 결과는 종교교육의 운영 실태를 단순히 빈도나 비율의 제시만이 아닌, 변화된 교육과정 제도 환경 속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한 구조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종교교육의 편성 형태와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현재 가톨릭 학교 현장에서 확인

되는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교장과 종교교사의 인식, 그리고 종교 교과 개설과 운영을 둘러싼 제약 요인과 필요 요인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종교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종교교육 시설, 교과서 활용, 학생 선호도 등 운영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여, 종교교육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별도 종교 교과 개설 현황

현재 한국 가톨릭 초등 및 중등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과로서의 종교교육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과목명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학교 별로 정리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1) 개설 관련 의견

(1) 고등학교

현재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삶과 종교」 교과를 ① 개설하는 경우 ② 복수로 개설했거나 개설 예정인 경우 ③ 「삶과 종교」 외에 종교 관련 교과로 개설하는 교과(고시의 교과목)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 ~ <표 5>과 같다.

생활과 인성 외에 고시의 교과로 개설한 교과목은 세계 종교의 이해, 인간과 철학, 교육의 이해, 논술,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주제 탐구(2학년 1.2학기), 철학 등이 있다.

<표 3> 「삶과 종교」 교과 개설 현황 (고등학교)
<Table 3> Status of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항목	N	%
2025-1학기 개설 또는 2025학년도 2학기 예정	7	41.2
2026학년도 개설 예정	2	11.8
2027학년도 개설 예정	2	11.8
현재까지 개설 계획 없음	6	35.3
합계	17	100.0

<표 4> 「삶과 종교」 개설시 복수 개설 혹은 예정 교과명 (고등학교)
 <Table 4> Co-offered or Planned Courses with "Religion in Human Life" (High School)

항목	N	%
인간과 철학	8	27.6
논리와 사고	1	3.4
인간과 심리	4	13.8
교육의 이해	1	3.4
논술	1	3.4
진로와 직업	1	3.4
생태와 환경	5	17.2
생활과 인성	4	13.8
기타	4	13.8
합계	29	100.0

<표 5> 고시외 교과목으로 개설된 종교 관련 교과 (고등학교)
 <Table 5> Non-Curriculum Religion Courses (High School)

항목	N	%
생활과 인성	5	50.0
기타	5	50.0
합계	10	100.0

(2) 중학교

현재 가톨릭계 중학교에서 종교 교과목을 ① 개설하는 경우 ② 2025~2027학년 개설 혹은 개설 예정 종교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6> ~ <표 7>과 같다.

<표 6> 종교 교과목 개설 현황 (중학교)
 <Table 6> Status of Religion Courses (Middle School)

항목	N	%
2025-1학기 개설 또는 2025학년 2학기 예정	3	50.0
현재까지 개설 계획 없음	3	50.0
합계	6	100.0

<표 7> 2025~2027학년 개설 혹은 개설 예정 종교 교과 명칭 (중학교)
<Table 7> Current and Planned Religion Courses for 2025-2027 (Middle School)

항목	N	%
청소년의 삶과 종교	1	16.7
종교	1	16.7
해당사항 없음	2	33.3
기타	2	33.3
합계	6	100.0

(3) 초등학교

현재 가톨릭계 초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어떤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교 관련 교과 명칭 (초등학교)
<Table 8> Current Religion Courses (Elementary School)

항목	N	%
영성수업	1	12.5
인성	3	37.5
종교	2	25.0
무응답	2	25.0
전체	8	100.0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 가톨릭계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2024~2025년 중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취합한 결과, 종교·철학·인성 등 기존부터 채택되었던 과목 뿐만 아니라 생태와 환경·세계시민·문화다양성·인문학적 상상여행·인간과 공존·지속가능한 환경과 삶 등의 과목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종교교과가 관련성이 부족한 인접 과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은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개설 관련 의견

현재 가톨릭 학교에서 별도의 종교 교과를 개설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가톨릭 학교의 종교 교과 미개설 이유
 <Table 9> Reasons for Not Offering Religion Courses (Catholic Schools)

항목	N	%
종교 과목 개설시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3	20.0
종교과목 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기 때문	1	6.7
종교과목이 아니어도 종교행사나 관련 교과를 통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4	26.6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	2	13.4
기타	5	33.3
합계	6	100.0

기타 의견 중에 유의미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개설과 관련한 기타 의견에서는 종교 교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부담이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 수업이 학생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종교 언급을 지양하고, 인성 수업이나 철학 과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교과나 행사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구조상 종교 교과 개설이 제한되는 제도적 요인도 언급되었다. 이는 종교교육 미개설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종교중립성 강화와 제도 환경의 영향 속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준다.

2. 별도 종교 교과 개설 인식

1) 개설 관련 의견

종교 교과목 개설 관련, 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비율도 30퍼센트 정도 혹은 이상을 기록한 점을 보아, 현재 관련한 학교 현장 상황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이유를 보면 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학교의 본질적 문화 전수 측면에 있어서도 타월한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인원이 과반수 정도로 1순위를, 이어서 2순위는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답을 하여 모두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0> ~ <표 11>과 같다.

<표 10>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Table 10> Opinions on Separate Religion Courses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개설되어야 한다.	23(57.5)	17(54.8)
경우에 따라 다르다.	14(35.0)	9(29.0)
한국의 교육 제도에서는 개설하기 어렵다.	3(7.5)	5(16.1)
합계	40(100.0)	31(100.0)

<표 11> 별도의 종교교육 과목 개설 의견 이유
<Table 11> Reasons for Opinions on Separate Religion Courses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종교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교과목이므로	14(35.0)	10(32.3)
종교 교과로 편성되어 운영될 때 종교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5(12.5)	0(0.0)
종교교육이 갖는 인성교육 측면이 있지만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1(2.5)	3(9.7)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은 물론이고 학교의 본질인 문화의 전수 측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육이기 때문	19(47.5)	16(51.6)
기타	0(0.0)	2(6.5)
무응답	1(2.5)	0(0.0)
합계	40(100.0)	31(100.0)

2) 미개설 관련 의견

종교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설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교장의 경우는 ‘종교’라는 명칭이 아닌 과목으로도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한 반면, 종교교사의 경우 답변은 다양하게 나왔다. 내용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별도의 종교교육 미개설 의견
 <Table 12> Opinions Against Separate Religion Courses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종교 과목 개설시 선택 교과를 복수로 개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2(15.4)	1(9.1)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되므로	1(7.7)	2(18.2)
‘생활과 인성’ 또는 ‘인성 수업’ 등 기타 관련 과목으로도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	7(53.8)	3(27.3)
학교 전체의 관심 부족	0(0.0)	2(18.2)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으므로	0(0.0)	2(18.2)
담당 교사가 없기 때문	1(7.7)	0(0.0)
기타	2(15.4)	1(9.1)
합계	13(100.0)	11(100.0)

이어서, 설문한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별도의 종교 교과를 개설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래의 <표 13>과 같이 종교교사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답변한 반면, 교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13> 미개설 어려움 해결시 종교 교과 개설 의향
 <Table 13> Intention to Offer Courses if Difficulties are Resolved

항목	교장	종교교사
	N(%)	N(%)
그렇다	9(53.8)	9(81.8)
아니다	1(7.7)	0(0.0)
잘 모르겠다	5(38.5)	2(18.2)
전체	15(100.0)	11(100.0)

3) 종교교육 운영의 어려움

종교교사들에게 종교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함에 있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복 답변을 받은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
 <Table 14> Difficulties in Religion Education

항목	그렇다	아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N(%)	N(%)	N(%)
종교 교과서 관련 문제	17(54.8)	12(38.7)	2(6.5)
교과서 외 종교교육 참고 자료 부족	19(61.3)	10(32.3)	2(6.5)
종교 담당 교사는 종교 교과 수업뿐 아니라 종교 행사도 담당해야하는 업무 상황	22(71.0)	9(29.0)	0(0.0)
종교교사를 위한 교육 부재	17(54.8)	11(35.5)	3(9.7)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17(54.8)	13(41.9)	1(3.2)
종교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18(58.1)	11(35.5)	2(6.5)
학교의 전반적인 무관심	8(25.8)	20(64.5)	3(9.7)
교과로서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 제도의 미비	26(83.9)	4(12.9)	1(3.2)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예산 미흡	7(22.6)	24(77.4)	0(0.0)

응답한 내용을 보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의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관련 교육 제도, 과도한 업무, 종교에 대한 무관심, 교과서 및 교육자료 부족 등은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이었다.

4) 개설 및 운영 필요 요인

종교교육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학교장과 종교교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1.2순위 항목을 응답 받은 내용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1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고른 항목을 보면, 학교장의 경우 전체의 41.0%가 ‘종교 교과 개설시 복수 교과를 개설해야 하는 현재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인 반면, 종교교사의 경우 1순위로 전체의 38.7%가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항목이었다. 또한 학교장과 종교교사 모두 두 번째로 ‘학교 구성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또한 2순위 중에서는 학교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복된 항목들이 많았으며, 종교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종교교과서 등 교육자료’를 선택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5>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필요 요인
 <Table 15> Necessary Factors for Religion Education

항목	학교장		종교교사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N(%)	N(%)	N(%)	N(%)
종교교육 담당자의 의지	2(5.1)	8(20.5)	5(16.1)	6(19.4)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7(17.9)	4(10.3)	12(38.7)	5(16.1)
종교 교과 개설시 복수 교과를 개설해야 하는 현재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	16(41.0)	8(20.5)	4(12.9)	9(29.0)
학교 구성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	10(25.6)	4(10.3)	10(32.3)	4(12.9)
교육과정 운영에서 타 교과 교사 협조	2(5.1)	8(20.5)	0(0.0)	2(6.5)
교육시설	0(0.0)	0(0.0)	0(0.0)	0(0.0)
종교 교과서 등 교육자료	1(2.6)	4(10.3)	0(0.0)	5(16.1)
종교 교과 운영을 위한 종교교사 업무 조정	0(0.0)	3(7.7)	0(0.0)	0(0.0)
기타	1(2.6)	0(0.0)	0(0.0)	0(0.0)
합계	39(100.0)	39(100.0)	31(100.0)	31(100.0)

3. 종교교육 환경 변화

1) 시설 관련

종교교사들에게만 종교교육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4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관련된 항목 대부분이 3점 이상을 기록하여 종교교육 시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중에 전용 강의실이나 성체조배실, 기도실 등은 항목 간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종교교육 시설 만족도
 <Table 16> Satisfaction with Religion Facilities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용하고 있는 종교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	25	1	4	3.00	.866
성당 접근 가능성과 설비	29	1	4	3.14	.915
성체조배실 또는 기도실	25	1	4	3.00	1.118
독립적인 종교 상담실	27	1	4	3.11	1.050
교정 내 종교적 상징물	31	2	4	3.55	.568
교실 내 종교적 상징물	31	3	4	3.52	.508

2) 종교 교과서 관련

정규 교과로서의 종교교육 때 교과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종교교사의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종교 교과서 사용 빈도
<Table 17> Religion Textbook Usage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 자료를 보충한다.	4	12.9
교과서와 보충 자료를 반반씩 사용한다.	6	19.3
교과서 외의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10	32.3
교과서 활용하지 않음	11	35.5
합계	31	100.0

과거의 설문들을 보더라도 예전부터 종교교육에 있어 종교 교과서가 잘 활용이 되어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한국 가톨릭 학교 차원에서 처음으로 검인정 종교 교과서를 발행한 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종교교육 관련 학생 선호 양상

종교교사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응답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범주화 시키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 종교교육 선호도
<Table 18> Religion Education Preferences

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자유로운 분위기	평가와 시험 없는 자유, 강제성 없음, 편안함, 시험 성적 반영 안 됨
2	종교 행사와 전례	성모의 밤, 성모데이, 아침기도, 전체 미사, 기념일 미사, 부활계란 나누기
3	기도와 성가 참여	아침기도, 성가 부르기, 노래, 성가, 친구를 위한 기도
4	인성 교육	존중, 배려, 인성 소양 활동, 신자 및 예비신자 활성화
5	교사와의 관계	교목자와 수업에서 만남, 교목자와의 신뢰 관계
6	다양한 종교 탐색	다양한 종교 알아보기, 가톨릭 성경 이야기 듣기, 성인 이야기
7	수업의 독창성	접하지 못한 주제 접근, 교과서와 다른 수업 방식, 지루하지 않은 수업
8	피정 및 체험 활동	학생 피정, 실제적인 기도 생활, 작은 성물 제공, 카드 체크

학생들이 종교교육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수업에 비해 사제나 수도자가 가르치고, 시험이 없으며, 내용 또한 암기식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생각 위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종교 행사와 전례, 인성교육, 그리고 종교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또한 확인 가능하다.

5. 종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에 포함된 자유 응답 문항을 바탕으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교장과 종교교사의 인식을 범주화하여 제시 및 정리하였다.

1) 학교장

우선 학교장의 의견을 텍스트으로 단어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종교, 교육, 학교, 교과, 과정, 교과목, 이해, 개설’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N-gram 분석을 했을 때에도 ‘종교-교육-개설-운영’이나 ‘교육-개설-운영-관련’ 등의 연관어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학교장의 경우는 종교교과의 과목 개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은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핵심 교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삶과 종교’ 과목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교양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 인정 교과로서 충

<표 19> 종교교육 전반 의견: 학교장
<Table 19> General Opinions: Principals

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정체성 유지와 종교교육 당위성	가톨릭 정체성, 설립이념 실현, 본질, 전인교육, 인성교육, 문화이해, 필수 교육
2	삶과 종교 과목의 가치 강조	국가인정 교양과목,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음, 교직원의 이해 필요, 교육과정 중심 교과로서 자부심
3	교육과정 및 제도적 한계	선택과목 구조, 학점제, 시수 확보 어려움, 교육청 인식 부족, 인권위 요구, 종교중립성, 운영의 묘 필요
4	구성원 협력과 공동 대응 요청	교구/학교법인/학교 구성원 간 협력,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필요
5	운영 현실과 제한	바로 적용 어려움, 개설 시도 중 (+ 특수학교의 복합적 상황)
6	전례 및 행사 강조	전례력, 미사, 교리 수업, 행사 중심이 아닌 교과 중심 강조
7	감사와 공감 표현	설문 감사, 교과서 집필진 감사, 학교 교육을 위한 관심 환영

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동시에 학점제와 선택과목 구조, 시수 확보의 어려움, 교육청의 종교 인식 부족, 종교중립성 논의 등 제도적 제약이 실제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별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교구·교육청·학교 구성원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적 협력 체계의 필요성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종교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제도적 현실 사이의 긴장이 학교장 인식의 핵심 특징으로 나타난다.

2) 종교교사

다음으로 종교교사의 의견을 텍스트으로 단어 빈도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종교, 교육, 개설, 운영, 어려움, 문제, 거부, 학생, 시설, 분위기, 부담’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N-gram 분석을 했을 때에도 ‘교사-입장-종교-교육’ 및 ‘현실-어려움-생각-학생’, ‘어려움-생각-학생-보호자’ 등의 연관어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종교교사의 경우는 종교교과의 과목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교사의 응답에서는 종교교육 개설과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선택과목 구조 속에서 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교육청 승인 절차, 복수 교과 개설 부담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 종교중립성 및 인권 담론과의 긴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법인·교구·관리자와의 협력 부족, 학생의 낮은 관심도 등 관계적·문화적 요인 역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

<표 20> 종교교육 전반 의견: 종교교사
<Table 20> General Opinions: Religion Teachers

순번	핵심 범주	내용
1	정체성 유지와 종교교육 당위성	가톨릭 정체성, 설립이념 실현, 본질, 전인교육, 인성교육, 문화이해, 필수 교육
2	삶과 종교 과목의 가치 강조	국가인정 교양과목,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음, 교직원의 이해 필요, 교육과정 중심 교과로서 자부심
3	교육과정 및 제도적 한계	선택과목 구조, 학점제, 시수 확보 어려움, 교육청 인식 부족, 인권위 요구, 종교중립성, 운영의 묘 필요
4	구성원 협력과 공동 대응 요청	교구/학교법인/학교 구성원 간 협력,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필요
5	운영 현실과 제한	바로 적용 어려움, 개설 시도 중 (+특수학교의 복합적 상황)
6	전례 및 행사 강조	전례력, 미사, 교리 수업, 행사 중심이 아닌 교과 중심 강조
7	감사와 공감 표현	설문 감사, 교과서 집필진 감사, 학교 교육을 위한 관심 환영

명을 철학·인성·윤리 등으로 전환하거나, ‘삶과 종교’ 과목을 중심으로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실천적 대안이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관계적 제약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교장 및 종교교사 의견 비교

<표 21> 종교교육 전반 의견: 교장 - 종교교사 비교

<Table 21> General Opinions: Principals vs. Religion Teachers

항목	학교장 응답	종교교사 응답
기본 관점	‘교육철학과 정체성 유지’ 관점에서 접근, 종교교육의 당위성 강조	‘현장 실행의 어려움’ 및 ‘실제 운영 부담’ 강조
개설 관련	선택과목 구조 인정, 하지만 정체성 실현 위해 ‘삶과 종교’ 과목 강조	선택과목 개설의 어려움, 시수 확보 제약, 교육청 인식 부족 강조
타종교 및 중립성	타종교 및 중립성 고려하되,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강화 필요	타종교 배려, 종교중립성, 인권 강조로 인한 직접 교육의 부담
교사-학생 관계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강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신부가 관리자처럼 느껴짐, 학생들과 거리감, 교사들의 부담
개선 방안	학교법인, 교구, 교육청 간 공동 대응, 제도적 지원 필요 강조	인성·철학 교과로 전환, 타교과와 융합 교육, 선택과목 대신 필수 과목으로 전환 제안
태도 및 인식	문제 인식 + 해결 방향 제시, 교구·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현실적 어려움, 부담감 중심, 주로 문제 인식에 집중
	정체성 유지, 전인교육 실현 강조, ‘삶과 종교’ 과목의 본질적 가치 강조	실행 부담, 학생 흥미 부족, 종교교육에 대한 부담 우려
해결 방향	교육과정 중심의 종교교육 유지, 교구·학교법인과 협력 구조 강화 필요	현장 부담 줄이는 방식(인성 교과 전환, 신앙 행사 중심) 제안

학교장과 종교교사의 응답을 비교·정리한 위의 <표 21>을 종합하면, 두 집단 모두 종교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 관점과 문제인식의 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학교장은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과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교과로 인식하며, 특히 ‘삶과 종교’ 과목의 제도적 정당성과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학점제와 선택과목 구조 등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교구·학교법인·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

응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해결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택과목 구조로 인한 시수 확보 문제, 교육청 승인 절차, 종교중립성 논의, 학생의 낮은 참여도 등 실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부담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명 변경, 타 교과와의 융합, 인성 교과로의 전환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은 제도와 철학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바라보지만, 종교교사는 실제 수업 운영의 차원에서 그 현실적 제약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종교교육의 편성 형태와 운영 방식

설문 분석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단일한 교과 형태로 유지되기보다는, 학교별 교육과정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교육은 정규 교과, 고시외 과목, 인접 교과와의 통합, 비교과 활동 등 복수의 형태로 편성·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양상은 학교급과 개별 학교의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부 학교는 종교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여 일정 시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을 가톨릭 학교 정체성의 핵심 교과로 유지하려는 학교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다수의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고시외 과목이나 선택 과목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필수 교과로 유지하기보다 선택적 구조 안에 배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수의 불안정성과 학생 선택에 따른 참여 편차라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삶과 종교’, ‘철학’, ‘인성’ 등 인접 교과와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활동이나 전례·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 종교교육의 내용을 유지하려는 조정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교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 교과 명칭 역시 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제도 환경 속에서도 종교교육이 학교의 판단에 따라 외형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획일적 운영으로 수렴되기보다는, 학교별 맥락과 조건에 따라 분화·조정되는 구조적 운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성과 역할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장과 종교교사 집단 모두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학생들의 인성 형성과 삶의 의미 성찰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장 집단은 종교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조정·운영되어야 할 하나의 교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제도적 구조와 교육과정 편성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보였다. 특히 종교교육을 정체성 구현의 핵심 교과로 인식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균형과 행정적 조건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반면 종교교사 집단은 종교교육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교교육이 단순한 인성교육이나 가치교육으로 환원되기보다는, 종교적 전통과 의미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 교육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동시에 시수 확보의 어려움, 수업 운영 부담, 학생의 낮은 참여도 등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지만, 교장은 제도와 구조의 차원에서, 종교교사는 수업 실행과 실천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교교육이 철학적 정당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 양상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단일한 운영 방식으로 유지되기보다는, 변화된 제도 환경과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된 형태의 운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라기보다, 교육과정 편성의 제약, 학생 선택 구조, 탈종교화라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분석 결과,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 양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종교 과목 개설을 위한 학교 현장의 전략적 노력이다. 다수의 가톨릭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환경 속에서도 종교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정규 교과, 고시의 과목, 선택 과목, 통합 교과 등 가능한 형식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종교교육을 포기

하기보다,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지속하려는 현장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다양한 과목 형태로 분산된 종교교육 운영 구조이다. 종교교육은 단일 교과로 집중되기보다 정규 교과, 인접 교과,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 학교 내에서도 복수의 방식이 병행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종교교육의 접근성을 넓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셋째, 탈종교화 현상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다. 종교교육 운영의 재구성에는 탈종교화와 종교중립성 강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 인식 변화, ‘종교’라는 교과 명칭에 대한 부담, 선택을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은 운영 방식과 교과 명칭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종교교육이 단순한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단순한 축소나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제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재구성되는 구조적 운영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재구성’은 운영 방식의 다양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교육이 ‘단일 교과’ 중심 구조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분산된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고정된 교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재맥락화되는 교육 실천임을 시사한다.

2. 제언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어떠한 조건과 한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에 대한 공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탈종교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실현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곱 가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언들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내용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 확립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혹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기관이 한국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립학교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 종교교육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종교 교과서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 종교 교재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연구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이 교회의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종교 교과서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가능한 설문지 등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내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좋은 수업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 만들어 진 종교 교과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각 학교 내 종교부서(교목실)는 가톨릭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목실을 담당하는 종교교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 및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요청이 된다.

다섯째,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과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교사들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며 그 토대 위에서 다채로운 가톨릭적인 내용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여 학생의 학업은 물론이고 교사의 교권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및 종교교육의 목적성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교교사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이미 중립지대의 내용으로 검인정을 받은 종교 수업에 대하여 복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혹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가톨릭학교 교장단 연합회 차원에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그리고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정향된 인간은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은 종교를 내포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 역시 종교교육을 통하여 신자 학생 및 비신자 학생들까지도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의 완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래에도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특히 학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학생들의 전인적 완성 및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는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 학생들의 인구 감소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 개인주의, 양극화, 물질만능주의, 생명 경시 현상, 환경오염, 그리고 자본주의 등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이처럼 여러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적 가치와 과학적 요소가 균형을 맞추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의 참된 도구로서 교회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 교육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톨릭 학교 고유의 사명과 교육 계획은 종교교육을 통하여 실현된다 (CFCE, 1977: n.11; CFCE, 2009: n.15). 학교의 본래 목적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가톨릭 학교도 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그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럴 때 분명 가톨릭 학교는 이 시대 안에서 종교교육을 통해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젊은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가톨릭 교회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또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직한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오늘의 시대상과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현대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조화롭게 교육하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Benedict XVI. *Verbum Domin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옮김 (2011). 주님의 말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1977). *The Catholic School*.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2022).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문헌 수록).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6-64.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1988). *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Retrieved 2025. 04. 01., from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atheduc/documents/rc_con_ccatheduc_doc_19880407_catholic-school_en.html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1997). *The Catholic School on the Threshold of the Third Millennium*.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2022).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문헌 수록).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05-324.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09). *Circular Letter to the Presidents of Bishops' Conferences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2022).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문헌 수록).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45-457.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옮김 (2022).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문헌 수록).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73-533.
- John Paul II. *Catechesi Tradendae*. 성염 옮김 (1990).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Second Vatican Council (1965). *Gravissimum Educationi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옮김 (2022). 교육의 중대성. In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22.
- Cho, Y. G. (2016). 2015 Revised Religious Studies Curriculum and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econd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45-68.
- Choi, J. G. (2005).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Definitions, Objectives, and Method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317-342.
- Gervais, W. M., & Norenzayan, A. (2012). Analytic thinking promotes religious disbelief. *Science*, 336(6080), 493-496. <https://doi.org/10.1126/science.121564>
- Groome, T. H. (2011).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NY: HarperOne.
- Jackson, J. C., Yam, K. C., Tang, P. M., Sibley, C. G., & Waytz, A. (2023). Exposure to automation explains religious declin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20(34), e2304748120. <https://doi.org/10.1073/pnas.2304748120>
- Kim, E. Y. (2023). Prospects and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Religion in Human Life>: Focusing on Teachers' Autonomy and Experti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4, 1-16.
- Kim, K. Y. (2023).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9-40.
- Lee, H. J., & Kim, E. Y. (2025).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 Buddhist-Affiliated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1-16.
- Lee, J. C. (2023).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41-60.
- Nussbaum, 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우석영 옮김 (2012).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서울: 휴머니스트.
-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021.11.24. 교육부 보도자료.

-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2 Revised Curriculum General Summary Key points. 2021.11.24. Retrieved 2024. 4. 1.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ed Curriculum. Retrieved 2024. 4. 15. from <https://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 교육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2. 12. 22.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Confirmation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n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2022. 12. 22. Retrieved 2024. 4. 1.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김귀성 외 (2012). 종교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Translated in English) Kim, G. S., et al. (2012). *A Study on Strategies to Vitalize Religious General Educa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조영관, 김경이, 김을옥, 김홍주, 오지섭 (2024). 고등학교 삶과 종교.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ho, Y. K., Kim, K. Y., Kim, Y. O., Kim, H. J., & Oh, J. S. (2024). *High School Religion in Human Life*.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국갤럽 (202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Gallup Korea (2021). *Religion in Korea 1984-2021*. Seoul: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4).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4.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4).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4*.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Retrieved 2025. 4. 2., from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5042>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22).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헌장 및 지침서. 서울: (사)한국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Translated in English) Committee for Education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2). *Charter and Guidelines for Korean Catholic School Education*. Seoul: Korean Federation of Catholic School Foundations.